

제3강 죽음, 끝이 아니다 1

티베트어로는 몸을 '뤼lu'라 하는데, 이는 수화물처럼 '당신이 두고 떠난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뤼'라고 말할 때마다, 티베트 사람들은 우리가 이 삶과 육신에 잠시 머무는 여행자들일 뿐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게 됩니다. 티베트에서는 외적인 환경을 좀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번거로운 일들을 벌이거나 그러한 일에 수많은 시간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티베트 사람들은 굶주리지 않을 정도의 먹거리, 등을 덮을 정도의 의복, 그리고 머리를 가릴 정도의 지붕만 갖춰지면 만족스러워합니다.

지금까지 하던 대로 외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데만 골몰한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끝없는 혼란에 빠져들 것입니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누가 호텔에 투숙할 때마다 호텔 방을 꼼꼼하게 다시 장식하려 하겠습니까?

2006년 12월 초에 종영한 MBC TV의 특집드라마 <기적>은 시한부인생을 선고받은 한 중년 남성의 '죽음에 이르는 길'을 다룬 최근 보기 드문 수작(秀作)이었다. 드라마에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중년의 이 남성은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주마등처럼 회상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바로 기적 같은 날들이었다고 고백한다.

어찌 이 사람뿐이겠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저마다의 생을 영위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마지막 남은 날을 향해 뚜벅뚜벅 걸음을 옮기는 여정일 따름이다. 다만 이 소중한 날들을 평소엔 '소중하다'고 느끼지 못하다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야 비로소 자신이 보내왔던 기적 같은 소중한 날들을 서둘러 되찾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 범인(凡人)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주인공 남자처럼 너무 고생만 시켰던 아내가 안쓰럽고, 살가운 말 한마디 못하고 늘 혼내기만 했던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만 드는 어리석은 사람의 인생역정이 바로 우리네 삶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죽으면 끝이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반대하는 사람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보라고 요구한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아니, 죽음 이후의 세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이 도대체 성립할 수 있을까. 죽음은 과학이 연구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주제이다. 왜냐하면 과학은 인간이 살아가는 영역에서 살아 있는 인간의 안목으로 연구하고 실험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물론 과학의 영역에도 ‘심령과학’이라 해서 사람의 영혼 문제를 포함한 사후세계를 다루는 학문이 있긴 하지만, 이 영역은 아직 정당한 학문 분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과학이나 일반 학문이 요구하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연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죽음 문제는 과학적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 있다. 똑같은 이유에서 ‘죽으면 끝’이라는 주장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죽으면 끝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단정내린 사람이 죽은 이후에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현상을 겪게 될 때 얼마나 당황하게 될까.

인간의 정신이나 영혼 같은, 보이지 않고 측정하기 힘든 영역의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서 현재의 과학적 연구방법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새로운 관점과 접근 방법의 필요성을 수용하기보다, 관습적으로 익숙한 개념과 별다른 검증 과정 없이 널리 통용되어오던 이론들을 마치 과학적으로 확증되거나 밝혀진 사실인 양 별 고민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간의 몸과 마음을 현재의 기계론적 사고방식으로 이해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많다. 그러다 보니 보이지 않는 영역이랄 수 있는 인간의 정신세계와 정신질환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현대 과학과 의학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불완전하고 부족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현대인들은 무조건 실험과 관찰을 통해 자료를 얻어야 하고 그것을 분석해 결론을 내어야 과학적 지식이라고 믿기 때문에, 실험과 관찰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영역에서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가 나오기란 더욱 쉽지 않은 일이다.

죽음이 끝이 아닌 이유

보통사람들이 죽음의 세계를 아무것도 없는 마지막 상황이라고 단정하는 것과는 달리, 늘 죽음을 곁에 두고 생활하고 있는 호스피스 봉사자들이나 죽음의 세계를 직접 체험했던 임사체험자들, 불치병을 극복하고 새 삶을 얻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죽음은 ‘끝’이 아님을 증언하고 있다. 그들은 사후세계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바, 우리가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하곤 한다.

죽음을 종말로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할 이유는 많다. 지금까지 살았던 세계와는 또 다른 세계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특히 수많은 증언들이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세계는 현재의 우리가 사는 세계만큼이나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는 세계이며, 그 실체를 본 사람들은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체험을 한 후에 오히려 순간을 영원처럼 소중하게 헌신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물론 이 문제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보려면 별다른 확증의 방법은 없다. 하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의 한결 같고 생생한 증언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만은 말해두고 싶다.

1. 호스피스 봉사자의 증언

호스피스 봉사자의 증언을 빌리면, 임종 2, 3일을 앞둔 환자는 대화하던 중에도 갑자기 허공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고 한다. 왜 그러느냐고 물으면 “누가 와 있다”, “누구를 보았다” 고 말한다. 때로는 천사와 이야기기를 나누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어떤 이는 이미 죽은 사람과 말했다고도 하고, “문밖에 누가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하라” 고 가족들에게 말한다고도 한다.

골수염으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했던 이군은 열일곱 살이었다. 15세인 중학교 3학년 때 발병해 치료를 받았지만 폐와 뇌에 전이되어 결국 호스피스에 의뢰되었다. 어느 날 성직자와 함께 호스피스 봉사자가 방문했을 때 이군은 호흡이 곤란한 상태였다. 이군의 어머니는 울고 있었고 이군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동행했던 성직자가 이군을 안고 기도해주자 잠시 후 이군은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저녁 이군은 숨을 거두었다. 연락을 받은 호스피스 관계자가 밤늦게 빈소를 방문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평소에 조그만 일에도 눈물을 보이곤 하던 이군의 어머니가 전혀 울고 있지 않았다. 어머니는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이군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 묻자 어머니는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는 것이었다. 호스피스에서 방문한 다음에 잠을 잘 잤는데 아침부터 이군이 자꾸 뭔가가 보인다며 허공을 쳐다보면서 웃고 놀라워했다는 것이었다. 이군은 아프다는 소리도 하지 않았고 호흡곤란도 별로 느끼지 못했다. 이군은 허공을 쳐다보면서 “베드로가 보인다. 그 옆에 빛나는 분은 누구냐?” 고 물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도대체 무엇이 보이니? 엄마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라고 말했다. 나중에 이군이 “우리 엄마는 큰일 났다. 나는 천국 가는데 우리 엄마는 지옥 가겠다” 고 하면서 영영 울더라는 것이었다.

당황한 어머니가 어찌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안보이지만 아이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 저거 말이니? 나도 이젠 보인다” 라고 말하자, 환자는 너무 좋아하면서 자기가 보고 있는 광경을 어머니도 보고 있는 줄 알고 하나하나 가리키면서 설명하더라고 어머니가 전했다. 그 후 저녁 무렵에 이군이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엄마, 저것 보았지요! 나 먼저 갈 테니까 나중에 오세요” 라고 말하면서 숨을 거두었다. 이 현상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죽음이 임박한 임종환자들은 죽기 며칠 전부터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동시에 보는 일이 일어나곤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기 2, 3일 전부터 이런 현상을 경험하지만, 더러는 그보다 훨씬 일찍부터 이런 현상을 경험하기도 한다.

인간에게 두 눈이 있는 것은 삶과 죽음, 두 세계를 다 잘 보라는 뜻이다. 많은 사람들은 살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보고 그 세계가 전부인 줄로 착각한다.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려고 할 때 그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한 눈으로는 이 세상을, 다른 한 눈으로는 다른 세상을 보게 된다. 이때 옆에 있는 가족들조차도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환자가 헛것을 본다고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임종 과정에서 당사자가 실제로 겪는 엄연한 사실이다.

위암 말기의 70대 여성이 복수가 차서 걸을 수도 없는 상태로 불교 호스피스병동 정토마을을 찾아왔다. 30여 년 절에 다니면서 염불 수행을 열심히 했던 할머니는 6월 어느 날 새벽 사력을 다해 염불을 했다. 임종시간이 임박해 3남 1녀 자녀들에게 연락했고 큰아들 내외만 빼고 다른 자녀들은 세 시간 이내로 도착했다. 혈압, 맥박, 신체적 증상은 모두 임종이 임박했음을 말해주었다. 혀도 말려들어가고 동공도 풀렸다.

그때 작은 아들이 말했다. “어머니, 형 저그 오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렸다가 보고 가쇼, 네!! 보고 가세요. 형 불효자식 만들지 말구요.” “할머니! 부처님 어디 계세요?” 할머니가 간신히 손가락을 움직인다. “저-기 구름타고…….” “아미타불이세요? 관세음보살이세요?” “아미타불…….” “혼자 오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좌우로 흔드신다. 팔을 벌려 갑자기 무언가 잡으려하다가 폭 팔을 떨어뜨린다. 모두 깜짝 놀란다. 그러더니 풀린 동공이 다시 모이고 혈압, 맥박 모두 정상으로 돌아오고 눈을 다시 떴다. “아이- 이놈아! 부처님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니가 너그 형 보고 가라고 하는 바람에 부처님이 구름 위에 서서 잠시 있다가 다시 오겠다고 가뿌렸다.” 구름 타고 오신 부처님께서 당신 손을 잡으려다가 아들의 애원을 들으시고 잠깐 시간을 허락하셨단다. 마침내 큰아들 내외가 도착했다. “부처님이 니 만나고 오라고 했당께.”

그리고 48시간이 지난 이틀 뒤 새벽, 다시 맥박이 떨어지고 혈압도 푹푹 떨어지기 시작했다. 연락을 받은 가족들 가운데 막내가 제일 먼저 도착했다. “어머니!” “다시는 나 부르지 말거래.” “예, 알겠습니다.” “잘들 살

거래.” 할머니의 혀가 말려 들어가고 숨을 몰아쉬다. 그러더니 지금 달려오고 있는 큰아들을 찾는다. “지금 오고 있어요.” “나 지금 바쁜게.” 손가락을 귀에 대시는 모습이 큰아들에게 전화통화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다. 휴대전화를 귀에다 대주었다. “아야, 너는 성질이 급한게 천천히 오그래. 그리고 형제지간에 우애 있게 살고…… 에미는? 에미야, 고맙다. 맘이로 고생 많았다. 잘 살아라. 내가 니 사랑하는 거 알제. 니만 믿고 간대이. 부처님 공부 잘 허구. 천천히 오그라, 천천히…….”

할머니는 눈을 감고 입속으로 염불하시더니 힘없는 손을 모아 합장해 기도한다. 들이간 숨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동공이 풀렸다. 아무도 울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 죽음이었다. 할머니는 합장한 그 자세로 죽었다. 어디에선가 향기가 진동했다. 여덟 시간 정도 그 향기와 너무나 아름다운 고인의 모습이 기록하여 얼굴을 덮을 수 없었다.

죽음의 순간을 접해보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서 얘기를 들으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며 이상하게 들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죽음에 임박한 사람이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동시에 보는 일은 매우 흔하게 일어난다. 장갑을 끼었다 벗으려면 손이 빠져나오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갈 때는 대개 2~3일 또는 수 시간이 소요된다. 그때 잠깐씩 양쪽 세계를 다 보게 되는 것 같다. 앞에서 인용하였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기 2~3일 전에 이런 현상을 경험하지만 더러는 그보다 훨씬 일찍부터 이런 경험을 하기도 한다.

영혼과 같은 보이지 않는 현상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호스피스에게는 엄연히 존재하는 현상이다. 건강할 때는 움직이는 몸,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전부로 착각했다라도 막상 임종과정이 시작되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려 하는 시점이 되면 서로 다른 두 세계가 함께 보이게 된다. 그리고 손이 빠져나간 장갑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듯이 영혼이 빠져나간 몸도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몸을 ‘시신’ 이라 부르면서 수의를 입혀 장례를 치르게 된다.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과정은 대단히 신비롭다. 사람이 임종할 때가 되면 몸이 서서히 기능을 정지하면서 체인-스톡 호흡(Cheyne-Stoke breathing, 과호흡과 무호흡을 반복하는 것)을 하다가 때가 되면 코로 긴 한숨을 쉬듯이 숨이 빠져나가 버린다. 코로 들이간 생기가 코로 나가는 모습을 목도하노라면 영혼의 존재를 확인하는 느낌을 받게 된다고 한다. 호스피스 간호사는 임종 당사자가 마지막 순간 다른 세상의 존재를 보는 모습을 이렇게 말한다.

“임종 2,3일 전이 되면 대화중에도 갑자기 허공 쪽으로 시선을 돌려요. 그리고 그쪽에 관심을 주다가 다시 대화하는 상황으로 돌아와요. 그동안은 제가 했던 말도 듣지 못합니다. 제가 ‘무얼 하셨어요?’ 하고 물으면 누가 와 있다거나 누구를 보았다고 하지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지요. 천사나 죽은 사람,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얘기를 나누었다는 분도 있습니다.

학부 시절에 실습을 나갔는데 중환자실이었어요. 어느 날 거기 입원해 있던 한 환자의 생명이 거의 다했다는 조짐이 생명보조장치 등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호기심이 많았던 저는 사람이 죽는 순간을 목격하고 싶었지요. 교대시간도 마다하고 자리를 지켰어요. 환자는 두 번 급하게 숨을 들이쉬다 잠시 멈춘 뒤 후-옥 하고 내쉬는 체인-스톡 호흡을 끊어질 듯 끊어질 듯 계속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후- 하고 마지막 숨을 내쉬는데, 길게 아주 길게……그리고 끝없이…… 그래서 꼭 호흡이 아닌 그 무엇이 함께 나간다는 느낌을 확 받았어요. 그 순간 침대 위의 환자 주위로는 아주 희미한 빛이 감싸져 있다가 사라졌어요.”

생사학을 창시한 퀴블러 로스도 정신과 의사이므로 과학자로 교육받았는데, 그녀의 관심은 오직 말기환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어떻게 하면 완화시킬 수 있는가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병실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살피면서 그들의 죽음관련 체험을 듣게 되었고, 또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직접 보살피던 중 아버지가 갑자기 그녀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목도하게 되었다.

그녀 아버지의 대화 상대자는 할아버지였는데, 할아버지는 그녀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으므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대화를 통해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말에서 떨어져 목뼈가 부러져서 전신마비 상태로 중증장애인 수용시설에 수용되었다. 가족들은 문병을 가지도 않았고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쓸쓸하게 죽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에게 그 일을 참회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이야기하는 도중에 갑자기 퀴블러 로스를 향해 “엘리자베스, 물 한 잔 가져 오렴” 이라고 말하니 대화를 계속했다. 아버지는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식이 정상이었다. 다른 호스피스 봉사자들의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먼저 죽은 가족이나 기독교의 천사, 불교의 보살 등과 죽어가는 사람이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례를 증언하고 있다.